



2014 국제현대미술특별기획전  
2014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Exhibition

**매트릭스: 수학\_순수에의 동경과 심연**  
**MATRIX: MATHEMATICS\_HEART OF GOLD AND THE ABYSS**

베르나르도 보네  
에카테리나 에레멘코  
권영혁스  
송기원 인  
송희진  
지비에 베이앙  
국형걸  
유지현  
카스텐 니콜라이  
김경미 이상민 이강성 고병광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 3, 4 전시실, 멀티프로젝트를 중층, 복도  
2014년 8월 12일 - 2015년 1월 11일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후원



국립현대미술관은 2014 국제현대미술특별기획전으로 <매트릭스: 수학\_순수예의 동경과 심연>전을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동시대 예술가들이 수학화된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관한 전시입니다.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정형민

참여작가 베르나르 브네, 예카테리나 에레멘코, 랜덤워크스, 슬기와 민, 송희진, 자비에 베이앙, 국형길, 유지원,  
카스텐 니콜라이, 김경미, 이상민, 이강성, 고병령

일시 2014년 8월 11일(월) 오후 5시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INVITA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cordially requests the honor of your company at the opening reception of the exhibition, *MATRIX: MATHEMATICS\_HEART OF GOLD AND THE ABYSS* as the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exhibition of 2014. The exhibition aims at finding out how contemporary artists view the mathematization of modern society.

**CHUNG Hyung-min**  
Direct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Participating artists** Bernar Venet, Ekaterina Eremanko, randomwalks, Su&Min, Hee-jin Song, Xavier Veilhan, Hyung-Gul Kook, Jiwon Yu, Carsten Nicolai, Kenny Kyungmi Kim, Sangmin Jade Lee, Gang Seong Lee, PyoungRyang Ko

**Date** Monday, August 11, 2014 at 5pm  
**Venue** MMCA, Seoul (30 Samcheong-ro, Jongro-gu, Seoul)

# 매트릭스: 수학\_순수예의 동경과 심연

## MATRIX: MATHEMATICS\_HEART OF GOLD AND THE ABYSS

진행 마동은

자문 최재경

운송 및 설치 정재임, 홍진성, 이경미

공간조성 윤해리

전시디자인 및

문화상품디자인

이민희

사진 장준호

보존처리 범대건, 박소현

교육 및 문화행사 고유민, 윤민지

전시해설 최아영, 이민영, 최미령

영화 김은희, 류원규

홍보 최선례, 김자람, 이정민, 이기석

번역 및 감수 이동주, 박지윤, 필립 마허, ㈜코리아헤럴드

p.004 인사말

p.006 축사

p.010 손주영 — 기획글

p.018 최재경 — 무한을 동경하며

p.022 이진경 — 하늘의 수학과 대지의 수학

p.030 이지훈 — 수학의 미학

p.038 베르나르 브네 — <큰 곡선을 지닌 포화>

p.046 마동은 — 수학을 그리는 예술

p.054 에카테리나 에레멘코 — <컬러 오브 매스>

p.064 랜덤웍스 — <도시 데이터 : 서울시 일자별 지출정보 시각화>

p.072 슬기와 민 —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영역>

p.108 송희진 — <진리의 성>

p.120 김재인 — 만남의 우주

p.124 자비에 베이앙 — <스탠다드 미터>

p.134 이찬웅 — 추상의 교차

p.142 자비에 베이앙 — <에어하키테이블>

p.150 국형걸 — <파트 투 홀>

p.160 황지은 — 파트 투 홀 리뷰

p.164 유지원 — <단위와 배열:동아시아와 수학과 일상의 공간>

p.198 카스텐 니콜라이 — <모아레 인덱스>, <그리드 인덱스>

- p.252 김홍중 — 순수한 욕망  
p.256 김경미, 이상민, 이강성, 고병량 — <선택의 계(系)>  
p.266 정연심 — 엔트로피와 우연의 마주침  
p.276 아카이브  
p.294 작가 프로필  
p.320 작품 도판 정보



## 송희진

### <진리의 성>

#### • 수학자의 삶 : 수학자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다

기하학 분야의 저명한 수학자 최재경 교수가 지난 30년간 기록한 11권의 수학 연습장 안에는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 빼곡하게 쓴 공식들 뿐만 아니라, '이크! ,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죽갔군, 보류, 다시 3년 전 문제로 돌아감, 다시 6년 전 문제로 돌아감. 몰랐다, 삶의 진실, 일어나기 싫어, 끝없이, 자신감, 걱정하지마, 문제, 문제없어!, 보람이 무엇이나?, 절대 포기하지마!, 되긴 되네, 맞다, 꿈, 최선봉에 섰다, 인생 한심하다, 언제까지나, 자식, 수입 잡았어요!, 인섭아(아들) 일어나라, 가고 싶어요, 좋은 아이디어!..'와 같은 낙서들과 아내에게 바치는 시 그리고 검게 칠해지거나 x자가 쳐진 수많은 실패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그러한 끊임없는 실패의 흔적들과 삶의 이야기들은 어떠한 수학공식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따뜻하며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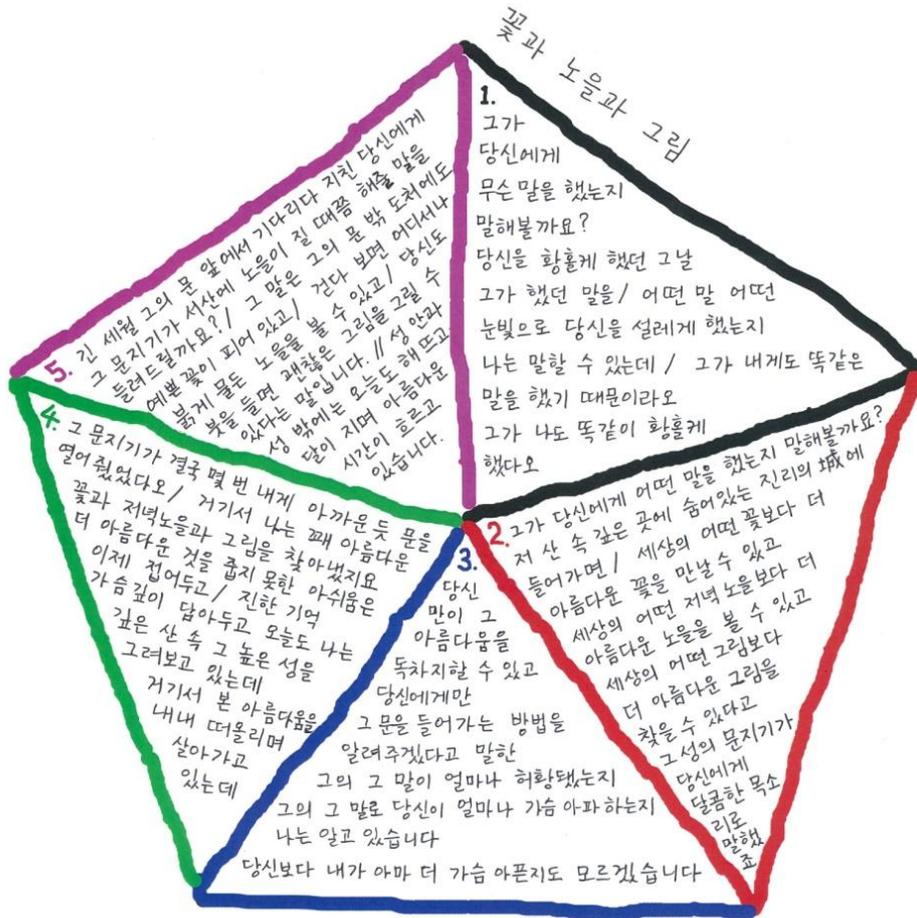
10년째 풀리지 않는 문제를 연구하다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쓰게 됐다는 최재경 교수의 시에는 진리의 성이 등장한다. (최재경 교수는 소설과 시와 그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은 그의 연구실의 책상 위와 책장과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붙여있는 칠판을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 진리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노을과 그림.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다 해도 그곳에서 꽤나 아름다운 꽃과 노을과 그림을 발견 할 수 있고, 진리의 성 밖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시를 읽어보면 더 높은 지식을 향한 고되면서도 즐거운 수학자의 삶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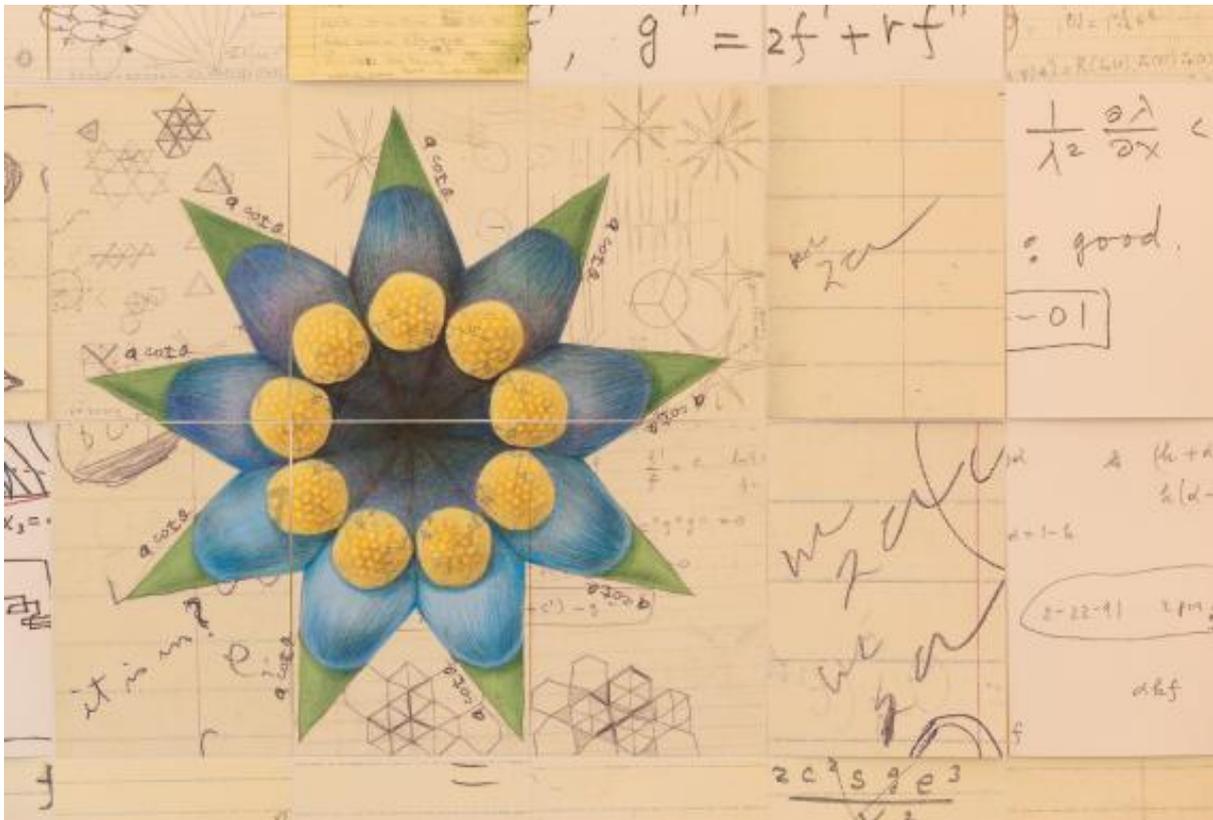
#### • 수학자의 방, 진리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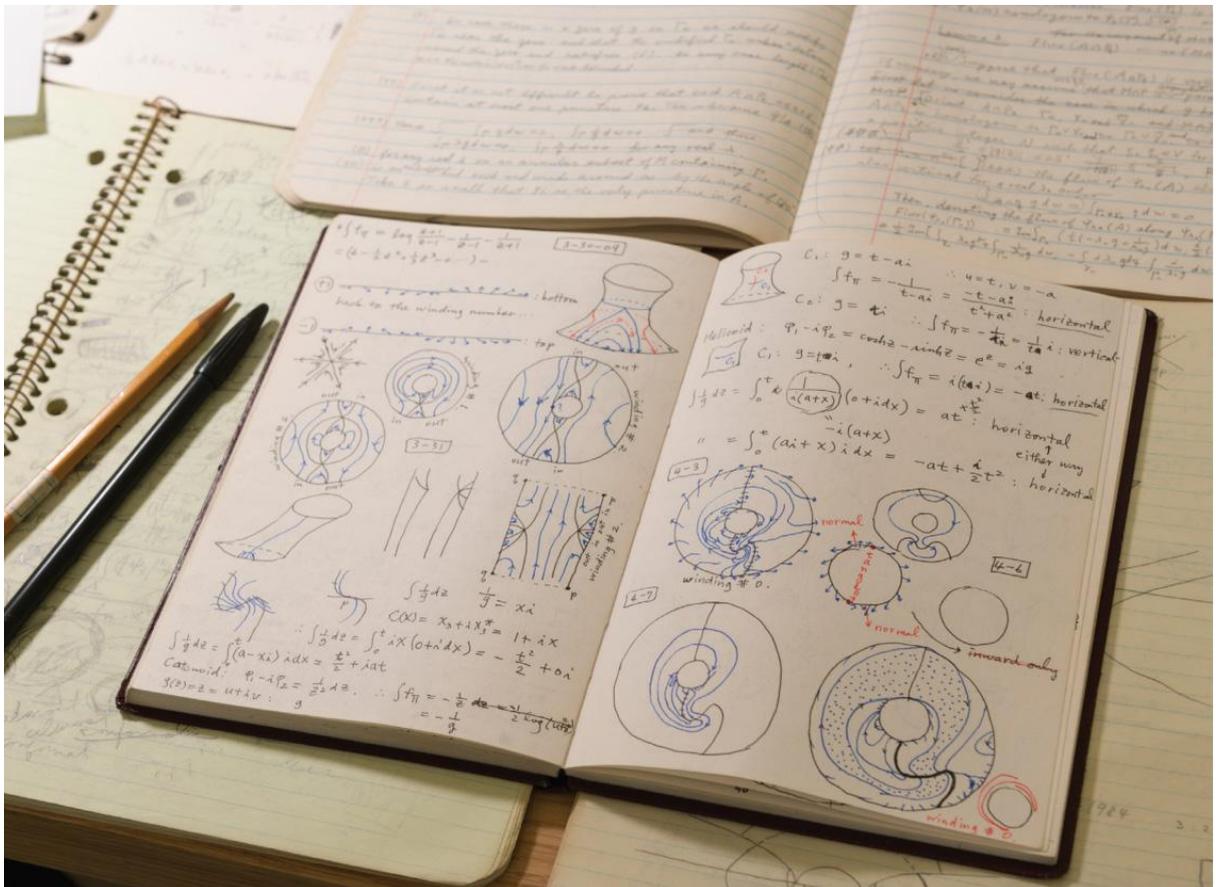
4면의 벽은 연구에만 몰두했던 수학자의 흘러간 시간을 보여준다. 자세히 보면 수학 공식보다는 노트 속에서 발견한 그의 삶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낙서들과 실패의 흔적들이 보일 것이다. 여기서는 수학자만이 간직하고 있던 삶의 뒷편이 주인공 역할을 하고, 수학공식들은 조연의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

수학자의 방에는 작가가 최재경 수학자의 연습장 속 기하학도형들을 가지고 재조합하여 만들어진 꽃들이 있다. 이것은 수학자의 시 속에서 등장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꽃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일 수도 있고, 꽤나 아름다운 꽃일 수도 있다. 아름다움은 개인차일 뿐, 성의 안과 밖으로 풍기는 꽃 향기는 서로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진리의 성으로 상징할 수 있는 수학자의 방에서 늘 그렇듯이 오늘도 수학자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수학자 최재경교수의 자필로 쓴 자작시.







## 만남의 우주

김재인(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법 앞에서>라는 단편에서 카프카는 평생을 법 안으로 들어가려 노력하며 기다린 시골 사람을 묘사한다. 문지기는 그가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평생 허락하지 않는다. 임종을 앞둔 시골 사람은 묻는다. “모든 사람들이 법을 얻고자 노력할진대 이 여러 해를 두고 나 말고는 아무도 들여보내 달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떤 일이지요?” 문지기는 죽어가는 시골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답한다. “여기서는 다른 그 누구도 입장 허가를 받을 수 없었어, 이 입구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나는 이제 문을 닫고 가겠소.”

카프카를 사랑하는 한 수학자가 있다. 수학자는 저 시골 사람과 달리 과감하게 ‘진리의 성’ 안으로 들어갔다. 비록 몇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수학자는 가장 아름다운 꽃과 노을과 그림을 한껏 누린다. 하지만 수학자는 자신이 누린 지고의 아름다움 때문에 가슴 아프다. 아름다운 것을 온통 독차지했는데 왜 가슴 아픈가? 사랑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나눌 수 없다면, 아름다움조차도 아픔의 원인이다. 독차지한 아름다움의 경험이 수학자와 사랑하는 이를 갈라 놓는다. ‘나눔’ 없기 때문이 ‘나뉘’이 생겨나고 만다.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고.

마침내 수학자는 진리의 성 안과 밖은 나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게 된다. 아름다움은 성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도 있다. 성의 안과 밖을 나누는 문은 사실은 안과 밖을 잇는 문이었으며, 성 안의 아름다움을 성 밖으로 발산하고 성 밖의 아름다움을 성 안으로 집약하는 통로였다. 문이란 들고 나기 위해 존재하는 법. 문은 가로막기도 하지만 출입구이기도 하다. 세상 어디에건 아름다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사랑하는 이도 이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 아름다움은 수학자가 혼자서만 경험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아름다움이었다. 성은 우주로 열리고, 우주는 성으로 모인다.

미술관은 두 개의 전시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진리의 성’은 그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에 자리한다. 통로를 비켜선 곳에 수학자의 책상이 있고, 그 위에는 책들과 노트들이 있다. 쌓인 책 가운데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도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도 눈에 띈다. 노트에는 알 수 없는 수학 기호들과 도형들이 있는데, 간혹 알아볼 수 있는 글자들도 있어 반가운 마음이 든다. 원칙적으로 들춰볼 수 없는 수학자의 노트 내용은 미술가의 손을 거쳐 사방 벽으로 투사된다. 노트의 모든 페이지는 아니고, 미술가의 눈에 든 페이지만이 선별되어 투사된다. 미술가는 문지기를 자처한다. 하지만 미술가가 그저 문지기 노릇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미술가는 자신의 아름다운 체험을 노트의 페이지 위에 덧칠한다. 아름다운 꽃과 노을과 그림을. 관객은 그렇게 수학자의 노트 내용과 만난다.

미술가는 수학자의 노트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수학자 칼 바이어슈트라스(Karl Weierstrass)의 문장이 눈에 띈다. "실로 뭔가 시인 다운 어떤 면모도 함께 지니고 있지 않은 수학자는 결코 완벽한 수학자는 아니리라(It is true that a mathematician who is not also something of a poet will never be a perfect mathematician)." 그렇다면 수학자는 이미 시인이하고자 했다는 말이다. 수학 기호가 아닌 언어의 실험가. 이로써 '진리의 성' 입구에 놓인 수학자의 시 "꽃과 노을과 그림"의 존재가 이해된다. 애초에 수학자는 진리의 성을 고립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수학자를 오랫동안 아프게 한 처음의 그 고립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카프카의 저 단편에서 문지기가 한 말을 떠올릴 수 있겠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입구가 있다. 수학자는 수학자의 입구를 통해 아름다움을 만났지만, 오직 그 입구만이 아름다움을 만나는 유일한 입구라고 오해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다 세월이 흘러 세상에는 여러 입구가 있고, 각자에게 각자의 입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닐까? 그 순간 수학자는 비로소 시인으로 생성하고, 다시 그로 인해 완벽한 수학자로 생성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 이중의 생성을 통해 시인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한다. 함께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은 애초부터 아름다움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수학자의 노트 중에는 물론 빛 바랜 것들도 있다. 노란 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붉은 색도 아닌, 그러면서도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색. 그것은 노트가 보낸 세월의 색이다. 이 색도 다시 세월에 따라 변하리라. 하지만 미술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트 자체를 노을로 만든다. 사방 벽에 투사한 노트의 페이지들은 새로운 배치와 색을 부여받는다. 노란 빛도 붉은 빛도 아닌, 아니 노랑기만 하거나 붉기만 한 것이 아닌, 움직이는 빛으로서의 노을. 그리하여 '진리의 성' 전체는 노을 빛으로 물든다.

'진리의 성'은 다종의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수학 기호와 도형은 언어와 만난다. 수학자는 사랑하는 이와 만난다. 미술가는 시인인 수학자와 만난다. 이 만남들을 관객은 만난다. 이 만남의 출입구를 통해 두 개의 전시 공간이 만난다. 성 안과 밖이 만난다. '진리의 성'은 이 모든 교차하는 만남의 초점이다. 이곳에서 각각의 만남은 각각의 만남과 만나고, 만남들의 우주가 펼쳐진다. 작품 '진리의 성'은 우주적 만남이 일어나는 낯설고도 아늑한 장소이다.

